유통업계 "코세페 흥행 이어간다"

쌀쌀한 날씨 영향…매출 기지개

맨즈위크 · 웨딩페어 행사 풍성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혼수 시즌을 맞아 예비 부부를 위한 '롯데 웨딩 페어'를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지역 백화점들이 급격이 떨어진 날씨를 발판삼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흥행을 노리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객단가가 높은 코트, 자켓, 아웃도어 등이 팔리면서 곤두박질 쳤던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유통업계들은 다양한 기획전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신세계는 초반에 부진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명절 후 특수가 사라지고 폭염, 비 등 이상 기온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코세페 첫 주말 매출은 의류 매출 부진으로 전년대비 -13.6%를 기록했다.

지난 9일부터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매출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성캐릭터 22%, 영캐주얼 15%, 남성 셔츠 · 정장 16% 상승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때는 추석 명절과 행사 기획, 추위가 겹치며 관련 상품이 매출을 주도했다"며 "올해는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10월 초까지 비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객단가 높은 아우터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광주신세계는 여세를 몰아 패션 장르를 강화, 남은 기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3일까지 남성들을 위한 '멘즈 위크'를 진행한다. 가을, 겨울 시즌에 발맞춰 비즈니스, 캐주얼, 아웃도어 등 세 가지 테마를 반영한 패션, 액세서리, 화장품을 준비했다. 각 브랜드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입시 금액할인권, 신세계상품권, 와인, 타이, 양말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혼수 시즌을 맞아 예비 부부를 위한 '롯데 웨딩 페어'를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웨딩 페어에서는 가전 · 가구를 포함해 주방 · 식기, 홈패션 등 혼수용품 관련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예복, 패션잡화, 해외명품 브랜드들도 참여한다. 삼성 · LG전자에서는 대형 가전 두 품목 이상 구매고객에게 최대 4% 특별할인과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웨딩 멤버스 회원들을 위한 신혼살림 풀 패키지 경품 이벤트와 웨딩 마일리지 더블 적립, 신규 회원 대상으로 웰컴 기프트 행사도 진행된다.

'월드 리빙 페어'도 열린다. 트쿠르제, 차세르, 포트메리온, 휘슬러,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자리했다. 청첩장을 가지고 가면 브랜드별로 5~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인기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에서는 루비, 다이아, 블루사파이어가 박힌 목걸이를 한정수량으로 선보이고 캐럿 다이아몬드를 특가 판매한다. 테그호이어 · 보메 메르시에 · 몽블랑 · 불가리 명품 워딩 예물 제안전도 열린다.

/황애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 동결

전문가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회복에 대한 한은의 자신감이 떨어져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은 내년 상반기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2.7%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2.90%에서 2.80%로 소폭 낮췄다"며 "4분기에 악재가 집중되고 있고 내년 유럽에서 주요국 선거 이슈 등으로 교역량 증가세를 장담하기 어려워 내년 성장률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주열 한은 총재가 현재 재정과 통화정책 양면에서 추가 정책 여력이 남아 있음을 시사해 연내보다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 연구원도 한은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00%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통위가 이번에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한다"며 "통화당국의 관심이 가계부채에서 경기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하방 위험이 커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한 만큼 내년 초반 금리 인하 기대의 불씨가 재점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가 소멸하는 내년 초반 한은이 경제전망을 또 하향 조정하면 정책 공조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가 재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한은이 내년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해 기준금리를 연 0.75%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광주은행, 1기 수료식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13일 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1기 수료식'을 가졌다.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역 사회에 정착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양 · 문화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교실은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운영돼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메이크업, 캘리그라피, 플라워 자개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수업이 이뤄졌다. 은행 직원이 직접 재테크 강의 및 금융사기예방방법에 대한 금융교육도 실시해 만족도를 높였다.

광주은행은 13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영기 사회공헌부장은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수업을 통해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서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현대차 파업에 협력중기 생산차질 심각

생산설비 가동률 93.6→68.3% '뚝'

현대차 협력 중소기업 10곳중 8곳이 파업으로 생산차질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설비 가동률 감소와 납품 차질 등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경영과 자금난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발표한 현대차 노조 파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현대차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파업으로 인해 20%p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이후 현대차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체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81.7%가 '피해가 크다'(81.7%)고 답했다.

파업 후 생산설비 가동률은 파업 전 생산설비 가동률(91.6%)보다 23.3%p 감소한 68.3%로 조사됐다.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겪은 납품차질 경험 횟수의 경우, 2016년에 평균 5.8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평균 2.2회) 및 2015년(평균 2.6회)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협력 중소기업들은 파업 장기화 시 고려하고 있는 경영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 생산축소(65.0%), 별다른 조치없이 기다린다(40.8%), 신규 거래처 발굴(15.0%), 근로자 해고 등 조직 간소화(8.3%) 등이었다.

/황애란 기자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공유해요"

광주상의, 사례 발표회서 기업 · 근로자 등 시상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김상열)는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근로자 및 2년 이내 입사자에 대해 근무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광주에서는 281개사 1,376명의 학습근로자가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중소기업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의 일학습병행제 지원기관 관계자 및 기업 담당자 100명이 참석했으며 기업부문, 현장교사부문, 학습근로자부문 금 · 은상을 시상했다.

기업부문 금상에는 친환경 이유식 업체인 ㈜짱죽, 은상에는 ㈜베스텍과 ㈜럭키산업이 공동 수상했다.

현장교사 부문의 금상은 오준호씨(에이스골프㈜), 은상은 임종용씨(㈜상진미크론 광주사업장)가 선정됐다. 이건희씨(㈜짱죽), 신선호씨(㈜LKGLSP)가 학습근로자 부문 금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도제학교 학습근로자는 현성팸(민충원, 박지훈, 전대근)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옥진 광주상의 사무국장은 "청년세대가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변화하는 만큼 일학습병행제가 튼튼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학습병행제에 관련된 사항은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062-350-5818,9)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한길씨앤씨 등 드론기업 전남 이전 검토

전남진흥원, 투자유치 설명회 성료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 주관한 전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수도권 드론기업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진흥원은 지난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드론 컨퍼런스 및 전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의 드론기업 지원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전문가 강연, 지난 올해 2월 서울에서 전남으로 이전한 대한무인항공서비스(대표 이병준)의 이전기업 성공사례도 함께 진행해 수도권 기업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도권 드론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길씨앤씨(신용인 대표), 아이라이즈(성승주 대표) 등 10개 기업이 이전 의향을 밝혔다.

전남진흥원과 한국드론협회(회장 박관민)간 지역 드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애란 기자